타인의 도움에 잘 대응하여 성공적인 삶을 산

스티비 원더, 벤저민 플랭크린, 아이젠하워

주장환 |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와 집념, 성실과 근면, 정직과 선의, 박애와 상조, 시간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등….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나 제도의 힘을 빌려 행복과 성공을 보장 받으려 할 뿐 스스로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번 달부터 이런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보다 고양된 자세를 통해 삶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는다. (편집자주)

인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론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멸의 시인 워즈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노력과 타인의 도움은 서로 모순 되는 듯 보이지만 두터운 의존관계와 굳건한 자립, 돈독한 타자 의존과 단단한 자기 의존이 늘 함께 해야 된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형제, 친지의 도움을 받아 자라고 죽을 때까지 선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각종 신세를 남에게 지게 마련이다. '훌륭한 삶은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는 데서 이뤄질 수 있다' 는 말이 있듯이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려면 타인의 도움에 잘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으로 역경에서 탈출하거나 인생항로가 바뀐 경우가 많다.

유명한 맹인 팝송가수 스티비 원더가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의 어린 시절은 외톨이였다. 학교에 가도 늘 시무룩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며 슬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스티비, 너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단다."

스티비는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지금까지 누구도 도와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눈 먼 그에게 누가 무슨 부탁을 하겠는가?

인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론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형제, 친지의 도움을 받아 자라고 죽을 때까지 선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각종 신세를 남에게 진다. 성공하는 삶을 영위하려면 타인의 도움에 잘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으로 역경에서 탈출하거나 인생항로가 바뀐 경우가 많다.

"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선생님?"

"그럼 있고말고. 교실에서 쥐를 잡다가 네 생각이 났단다."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

"쥐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려주렴."

스티비는 신이 났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는 쥐가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선생은 쥐구멍을 찾아내 약이나 쥐틀을 놓아 쥐를 박멸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뛰어난 선생은 스티비 인생 항로를 단번에 바꿔 놓았다. 스티비가 자신의 청력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날부터 전에 없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자신이 할 일을 찾은 것이다.

어리석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업적, 교육적 또는 그 밖의 모든 다른 환경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거나 청취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당면해 있는 일에 전혀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 너무나도 많은 감정적 정체상태가 있다. 그것은 이미 가득 찬 유리잔에 더 많은 물을 부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더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오래된 물을 먼저 따라버려야만 한다.

독일에서의 일이다. 한 고등학생이 자기보다 15살이나 많은 30대의 한 남자를 때려 죽였다. 살인동기를 들은 경찰은 기가 막혔다. 이 학생은 죽은 남자의 아내와 정사를 나누다가 남편이 쳐다본다고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학생과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면 매일 낮 침대에서 정사를 나눴다. 때때로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도 아내와 학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돌아온 남편을 귀찮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본 남편이 학생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왜 쳐다보느냐며 학생이 남편을 때려 죽인 것이다.

이 엽기적인 사건의 이유는 단연코 '대화의 단절', '소통의 부재'다. 사회, 가족적 관계가 틀어 막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 남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의 가슴으로부터 떨쳐버려야만 한다.

당신이 방금 퇴근해서 집에 온 사람이든, 40점을 받은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있는 부모이든, 새 물건을 판매하려는 장사꾼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CEO이든, 먼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바람, 희망과 꿈, 두려움과 염려, 상처와 고통을 말하도록 놔둘 필요가 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그런 것들에 관해 말하기 전에 말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 내면에 공간을 열게되어 그들이 당신이 해야만 할 말을 경청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총명한 사람이라면 우정과 사랑 같은 덕목들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한다.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면, 그의 삶은 보나마나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업적, 교육적 또는 그 밖의 모든 다른 환경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거나 청취되고 있다는 느낌들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가득 찬 유리잔에 더 많은 물을 부으려 하는 것과 같다. 더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오래된 물을 먼저 따라버려야만 한다.

벤저민 플랭크린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사람으로 봤다. 그는 늘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앞세우며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적을 친구로 만든 사람이다. 플랭크린은 1736년 의회서기로 선출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해에도 그가 다시 후보에 오르자 신참의원 하나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려고 그를 반대하고 나섰다. 플랭크린은 위기감을 느꼈으나 재선되었다.

반대한 의원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 영향력이 상당했다. 그는 곧 주 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플랭크린은 그에게 굽히고 들어가거나 비굴하게 행동해 환심을 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존심도 살리고 친구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다. 그 의원의 서재에는 매우 희귀한 저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플랭크린은 의원에게 며칠간 그 책을 빌려 볼 수 없겠느냐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은 그 의원은 곧 그 책을 보내 주었고 책을 다 읽은 플랭크린은 1주일 후 감사편지와 함께 책을 되돌려 보냈다. 이후 의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 의원은 아주 반가운 얼굴로 정중하게 말을 걸어왔다. 플랭크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이구 이거 정말 고마웠습니다. 차라도 한 잔 하시죠."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그 의원은 플랭크린의 편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죽을 때 까지 지속되었다.

'마음의 이야기' 과정을 창시한 클리프 터피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다음 번 공을 받아쳐 넘길 준비만 하고 있는 탁구게임을 닮았다. 하지만 여러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고 연관된 느낌들을 이해하려고 잠시 멈춰봄으로써 명백한 적들을 같은 팀의 진정한 구성원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아이젠하워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클리프 터피의 이야기가 실감난다.

아이젠하워는 웬만하면 야전군 사령관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직접 전선에 나가 전장에 머물면서 겪는 불편한 사항들을 듣고 해결해 주었다. 전선을 순시할 때 그는 늘 지휘 막사를 전투 사령부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는데 그것은 전투를 치르는 부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사령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다. 내 감독을 받지 않아도 임무를 다 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유명한 속담을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친절하게 대해 준 사람보다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어라."

록펠러는 사업을 같이하던 친구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해 큰 손해를 입혔으나 비난 대신 오히려 칭찬을 했다.

과실이 풍성하게 열린 아름다운 나무나 부지런히 일한 꿀벌의 벌통처럼 좋은 인간관계도 열매를 맺는다. 아첨이 아닌 칭찬, 공격이 아닌 비판, 얕보지 않은 격려나 애정표현도 테크닉이 필요하며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씨앗 속에서 자라며 흠잡고 비판하는 류의 잡초가 모두 제거돼야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좋았어, 그래도 60%나 회수 했으니 그게 어딘가! 자넨 뛰어난 능력을 가졌네."

좋은 인간관계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비울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느낌들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향상된 갈등 해결 기술(벤저민 플랭크린처럼)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계발하고 더 큰 유대감, 일치감, 결속감을 가지도록 노력하면 된다. 분노들과 오래된 이슈들을 잊어버리는 향상된 능력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프랭클린이 상대를 비난하고 중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과 갈등상태에 있는 한 해군 사령관에게 이런 충고를 보냈다.

"나는 당신의 인류애와 신중함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벤크로프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를 탓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아꼈고 그날 당신이 파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배에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이 하지도 않은 배신을 탓합니다. 실수를 미리 방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부하나 친구를 제대로 보고 칭찬해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곧 훌륭한 선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주위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하면 친구는 줄고 적은 늘어날 것입니다."

과실이 풍성하게 열린 아름다운 나무나 부지런히 일한 꿀벌의 벌통처럼 좋은 인간관계도 열매를 맺는다. 타인을 즐겁게 하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드물다. 아첨이 아닌 칭찬, 공격이 아닌 비판, 얕보지 않은 격려나 애정표현도 테크닉이 필요하며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씨앗 속에서 자라며 흠잡고 비판하는 류의 잡초가 모두 제거되어야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주장환 님은 서울신문사(스포츠서울), 세계일보를 거쳐 파이낸셜뉴스 문화부장, 국제부장, 유통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언론연구원, 캠브리지대학을 연수하였으며 충효예실천운동 본부전문위원, 한국바디웍프로페셔널협회고문, 언노련민주언론실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대학원평생교육원, 삼성, GS문화원 등에서 「신문을 통한 우리 경제 엿보기」, 「문학의 이해-소설과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하는 NIE / 논술여행」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논리강의』, 『논술이라고?, 너 딱걸렸어』, 『노벨문학상 소프트 1,2』, 『과학퍼즐』 (문화체육부 선정 추천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식논술陣법 NIE』, 『로즈여사에게 배우는 특별한 자녀양육법 26』 등과 장편소설 『그 바닷가 헛간은 따스했다』, 『사바카』, 『겨울새 물살털기』, 시집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집 한 채』, 번역서 『독불장군처럼 살아라』, 『오사마빈라덴』, 『사랑을 주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